

2경기 3골... '슈퍼맨' 정조국이 돌아왔다

K리그 클래식 2R 홈 개막전서 결승골...광주FC, 제주에 1-0 승

“가족 앞에서 골 감격...남기일 감독 선택 옳았음을 증명해 기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라운드를 질주한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이였다. 광주 FC가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정조국이 감격스런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경기다”며 홈 개막전을 기다렸던 정조국이였다. 입장부터 정조국에게는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9번 유니폼을 입은 아들 태하(6)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광주 홈팬들

앞에 처음 섰다. 그리고 경기는 권영현(13분)을 시작으로 김호남(15분)과 까랑가(18분)까지 제주의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경고 카드를 받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반 18분 양팀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광주 이찬동이 잔디에 걸려 넘어지면서 제주의 역습이 전개됐다. 공을 잡은 권영현이 광주 진영으로 그대로 돌진한 뒤 매서운 슈팅까지 날렸다. 광주 수문장 최봉진이 몸을 날려 겨우 실점을 막은 뒤 이찬동은 제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격이 펼쳐졌다. 제주 수비수 이광선이 골키퍼를 향해 시도한 백패스가 정조국에게 향했다. 공을 가로챈 정조국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비껴갔다. 후반 7분 정조국이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제주 진영에서 공을 뺏은 정조국이 수비수 사이로 공을 찰러 조성준에게 넘겼

다. 아쉽게 골키퍼의 품에 슈팅이 막혔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풀어내던 정조국이 후반 19분 마침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헤딩으로 중원에서 넘어온 공, 송승민이 다시 헤딩으로 백패스를 해 정조국 앞으로 공을 보내줬다. 침착하게 공을 몰고 간 정조국은 골키퍼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그림처럼 골망이 흔들렸다. 정조국의 두 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3호골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아내인 탤런트 김성은씨와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골을 터트린 정조국은 반지 세러머니를 한 뒤 관중석 앞까지 달려갔다. 이어 뒤로 돌아선 그는 팔을 들어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을 가리켰다. ‘내가 바로 정조국이다. 9번 정조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경기가 1-0으로 끝이 나면서 1라

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던 정조국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가족 앞에서 만든 결승골이라 더 감격스러웠던 정조국이다. 정조국은 “뜻깊은 첫 승리다. 많은 광주 시민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승리를 해서 기분이 좋다”며 “광주를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들 앞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남편으로서 처진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뜻뜻하게 남편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 또 오늘까지는 남기일 감독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당한 가장이 되고 싶어서 어렵게 선택을 한 제 2의 축구 인생. 그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득점으로 광주에 2016시즌 첫 승리를 안겨줬다. 한편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1만 638명이 찾으면서 2013년 10월 20일 독도의 날 기념 플래시몹 행사가 열렸던 2013년 10월 20일(1만 8560명) 부천전 이후 홈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정조국이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후반 19분 골을 넣은 뒤 반지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여름·김호남, 치열했던 '절친 대결'



광주 FC의 여름(왼쪽)이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절친' 김호남의 태클을 받고 균형을 잃고 있다. 이 태클로 김호남은 경고 카드를 받았다. <광주 FC 제공>

제주 이적 김호남, 여름 태클 걸다 '경고' 받기도

함께 웃을 수 없었던 '절친더비' 1라운드였다.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여름과 김호남의 '절친더비'로 눈길을 끌었다. 광주의 중원을 책임진 여름과 제주의 공격 라인에 이름을 올린 김호남은 소문난 절친이다. 광주대에서 함께 프로선수의 꿈을 키웠던 두 사람은 광주 FC를 통해 K리그 무대에 올랐다.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만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강등이라는 아픈 순간에도, 승격이라는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했던 두 사람이기도 하다.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호남은 여름의 도움을 받아 승격을 알리는 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각별한 동료로 지내왔던 두 사람은 김호남의 제주 이적으로 2016시즌에는 적으로 만나게 됐다. 공교롭게도 광주의 홈 개막전은 제주의 첫 원정경기였다. 아직은 어색한 제주 유니폼 차림의 김호남은 광주의 홈 개막전날 친정팀을 만났다. 그라운드에서는 인정사정 볼 수 없는 두 사람은 경기 전 “승리는 우리팀 것이다”며 ‘절친 더비’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대로 두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전반 15분에는 두 사람의 몸싸움 끝에

경고 카드가 나오기도 했다. 왼쪽에서 공을 잡고 올라가려던 여름을 향해 김호남의 깊은 태클이 들어왔다. 여름이 경기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한 사이 김호남에게는 옐로 카드가 주어졌다. 친구의 손을 잡아 일으킨 김호남, 이내 두 사람은 다시 적이 되어 서로를 막고 뚫으려는 싸움을 이어갔다. ‘절친더비’의 1라운드의 승자는 여름이 됐다. 김호남이 베테랑 이종민의 방어에 막혀 고전을 하다가 후반 37분 모이에스와 교체됐지만, 마지막까지 그라운드를 지킨 여름은 정조국의 결승골로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엇갈렸던 표정이었지만 광주팬 앞에 선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다. 김호남에게 광주는 축구의 고향이자 현재의 김호남을 있게 한 곳이다. 김호남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에게 열정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던 광주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서포터즈까지 달려왔다. 팬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한 김호남은 여름을 찾았다. 두 사람은 머리품을 벗어 교환한 뒤 애뜻하게 포옹을 했다. 긴 말이 필요 없었던 두 사람의 작별 순간이었다. 한편 ‘깃발 더비’로 눈길을 끌었던 성남 FC와 수원 FC의 경기는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꼬인 리본... 꼬여버린 메달 행진

손연재, 리듬체조 월드컵 개인 4위...3연속 메달 실패

손연재(22·연세대)가 올 시즌 두 번째 월드컵 개인종합에서 리본에 발목을 잡혀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손연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계속된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개인종합 둘째 날 리본에서 17.450점, 곤봉에서 18.000점을 받았다. 전날 불에서 18.350점, 후프에서 18.500점을 기록한 손연재는 4종목 합계 72.300점으로 전체 33명의 선수 중 4위로 밀려났다. 알렉산드라 솔다토바(러시아)가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75.65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간나 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가 73.700점으로 2위, 네타 리프킨(이스라엘)이 73.35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열린 두 국제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과 에스도 월드컵에서 나란히 개인종합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는 리본과 곤봉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손연재는 올림픽 시즌을 맞아 가장 야심 차게 준비한 리본에서 스텝이 꼬였다.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에 맞춰 연기를 펼친 손연재는 크고 작은 실수가 잇따르며 17.450점을 얻는데 그쳤다. 손연재는 곤봉에서 만회를 노렸지만, 곤봉에서도 18.000점에 그치며 재역전에는 실패했다. 애초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부동의 세계 1위 야나 쿠드랴체바와 강력한 2인자 마르가리타 마린(러시아)이

러시아)이 빠지고, 동메달 경쟁자인 멜리타나 스타누타(벨라루스)까지 불참한 터라 손연재의 개인종합 메달 수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손연재는 리본에 이어 곤봉에서 연이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시즌 3개 국제대회 연속 개인종합 메달 행진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또 손연재의 개인종합 개인 최고점 경신도 무산됐다. 손연재는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72.964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데 이어 한 주 뒤에 열린 에스도 월드컵에서 73.550점(후프 18.400점, 불 18.350점, 곤봉 18.400점, 리본 18.400점)을 찍고 또다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개인종합 후프에서 생애 처음으로 18.5점대 벽을 넘으며 개인 종합 최고점 경신 기대감을 높였지만 리본에서 경기를 망치고 말았다. /연합뉴스

김세영·지은희 누가 웃을까

JTBC 파운더스컵 3R 1·2위...리디아고 '추격전'

지은희(29·한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7년 만의 우승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지은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538야드)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 3라운드에서 보기없는 깔끔한 플레이로 버디만 7개를 잡아냈다.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를 적어낸 지은희는 전날 선두였던 김세영(23·미래에셋)을 밀어내고 단독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LPGA 투어 통산 2승의 지은희는 이로써 7년 만의 우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은희는 2008년 6월 웨그먼스 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하고 이듬해 메이저 대회

인 US여자오픈을 석권했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11언더파 공동 5위로 3라운드를 출발한 지은희는 4번홀까지 파 행진을 하다가 5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사통을 걸었다. 7번, 9번홀에서 버디를 낚은 지은희는 후반에서도 10번홀을 시작으로 14번, 15번, 17번홀에서 1타씩을 줄이며 3라운드를 마쳤다. 전날까지 단독 선두였던 김세영은 다소 주춤하며 이날 하루에만 8타를 줄인 스테이스 루이스(미국)과 함께 공동 2위(17언더파 199타)로 내려앉았다. 김세영은 13번홀(마4)에서 이글을 잡아내는 등 한때 19언더파까지 치고 올라가며 2위권

과의 격차를 늘렸으나, 16번과 17번홀에서 샷이 흔들리면서 1타씩을 잃어 이날 2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하지만, 김세영은 여전히 우승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시즌 첫 승에 대한 기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라운드에서 10언더파 62타, 코스레코드를 세웠던 이미향(23·KB금융그룹)은 13언더파 203타로, 이미림(27·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12위를 달렸다. 처음 미국 본토 무대에 선 장타자 박성현(23·넵스)은 이날 4타를 줄여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3위에 자리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도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8타를 줄이는 완벽한 플레이로 전날 공동 25위에서 공동 4위까지 뛰어올랐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전날 컷 탈락했다. /연합뉴스